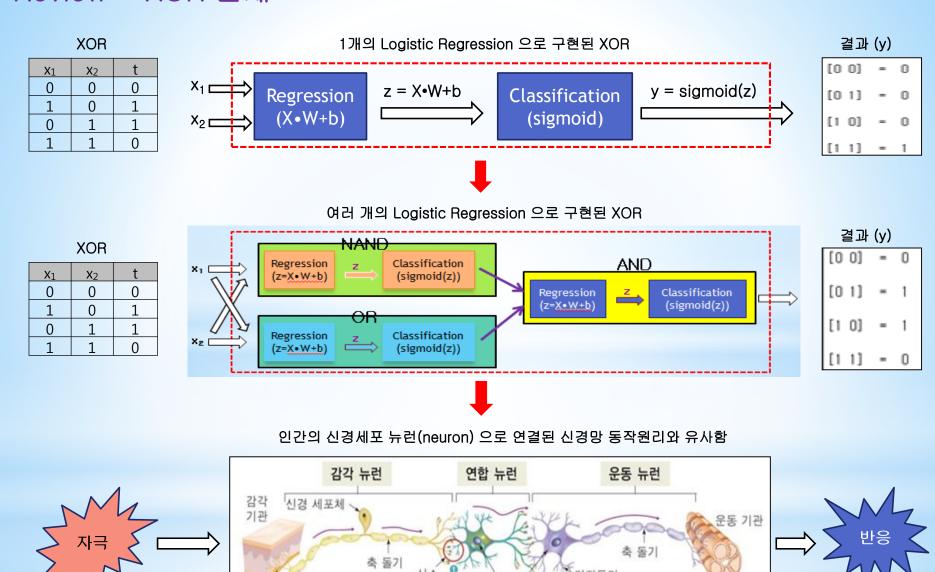
파이썬(Python)으로 구현하는

# Deep Learning

#### Review - XOR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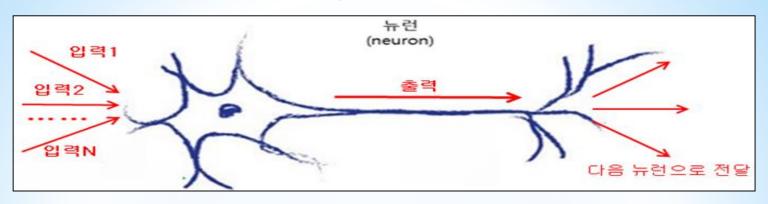


신경 세포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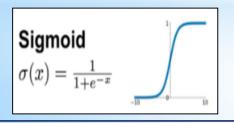
※ 이미지출처(재구성): http://study.zum.com/book/1177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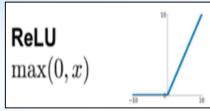
가지돌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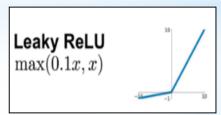
# 신경망(Neural Network) - concept (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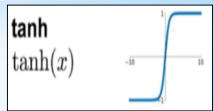


- ⇒ 신경 세포 뉴런(neuron)은 이전 뉴런으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또 다른 신호를 발생시킴
- ⇒ 그러나 입력에 비례해서 출력을 내는 형태 (y=WX) 가 아니라, <mark>입력 값들의 모든 합이 어느임계점(threshold)</mark>에 도달해야만 출력 신호를 발생시킴.
- ⇒ 이처럼 입력신호를 받아 특정 값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경우에, 출력을 생성해주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(activation function)라고 하는데,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Logistic Regression 시스템의 sigmoid 함수가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\*임. 즉, sigmoid 에서의 임계점은 0.5 로서, 입력값 합이 0.5 보다 크다면 1을 출력으로 내보내고, 0.5 보다 값이 작으면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(0 은 출력이 없는 상태)
  - ※ 활성화함수: sigmoid, ReLU, Leaky ReLU, hyperbolic tangent(tanh) 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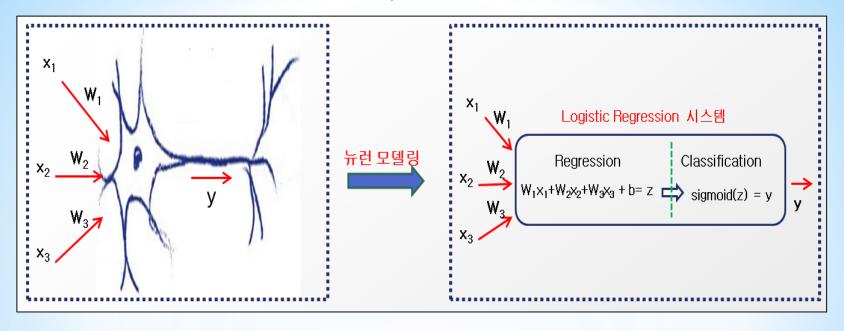








#### 신경망(Neural Network) - concept (II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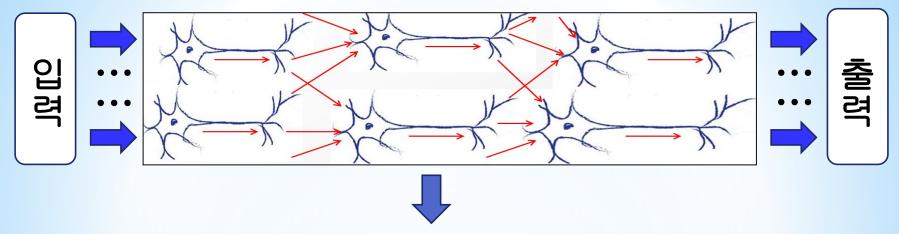
- 신경 세포인 뉴런 동작원리를 머신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,
  - ① 입력 신호와 가중치를 곱하고 적당한 바이어스를 더한 후 (Linear Regression)
- ② 그 값을 활성화 함수(sigmoid) 입력으로 전달 (Classification)해서 sigmoid 함수 임계점 0.5 를 넘으면 1을, 그렇지 않으면 0을 다음의 뉴런으로 전달해주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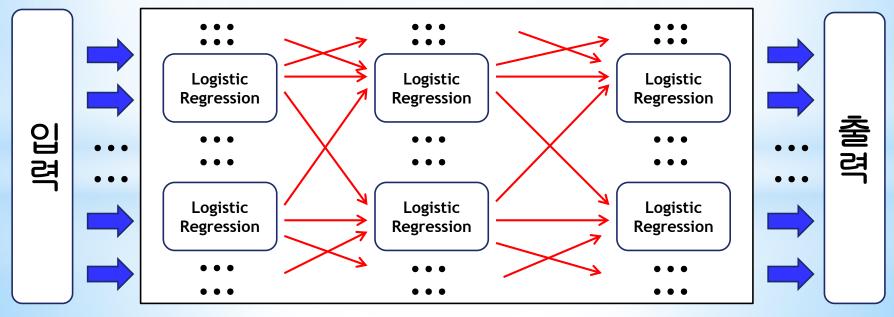
multi-variable Logistic Regression 시스템 구축

# 신경망(Neural Network) - architectu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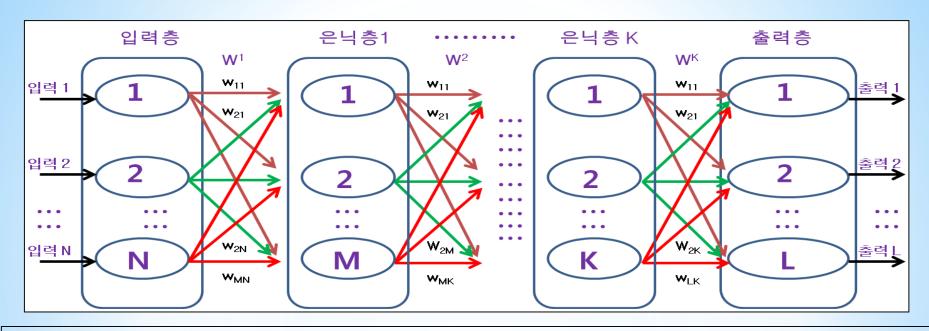
#### 신경망 (Neural Network)



#### 인공 신경망 (Artificial Neural Network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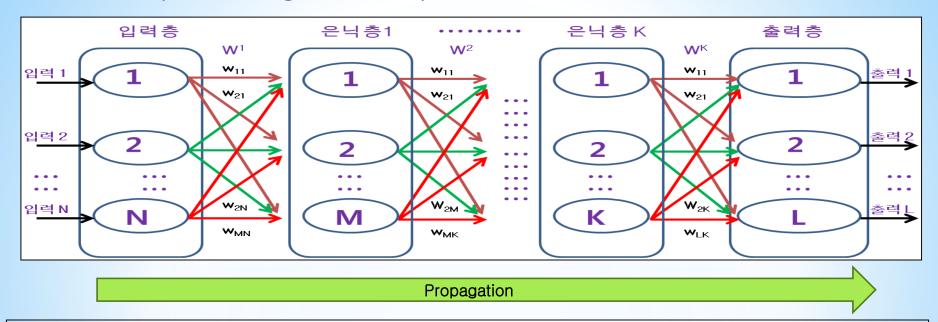
## 딥러닝(Deep Learning) - concept



#### > 딥러닝 (Deep Learning)

- 노드(node) : 1개의 logistic regression을 나타냄
-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 구조를 바탕으로 입력층(Input Layer), 1개 이상의 은 닉층(Hidden Layer), 출력층(Output Layer)을 구축하고, 출력층(Output Layer)에서의 오차를 기반으로 <u>각 노드(뉴런)의 가중치(Weight)를 학습하는 머신러닝 한 분야</u>
- [참고] 딥러닝 구조에서 1개 이상의 은닉층(hidden layer)을 이용하여 학습시키면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. 즉 은닉층을 깊게(Deep)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딥(Deep)러닝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고 있음

## 딥러닝(Deep Learning) - concep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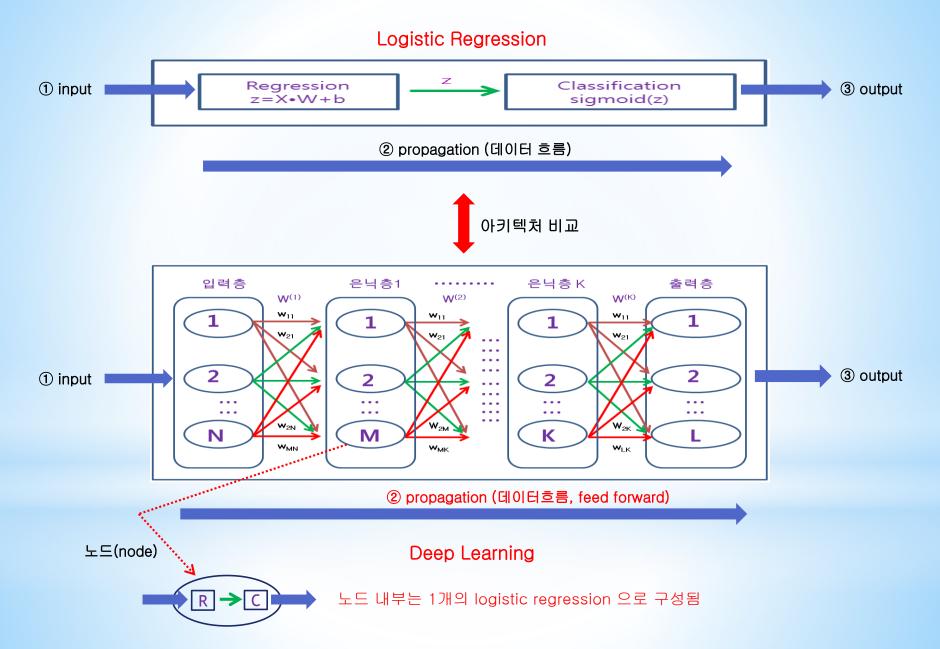
가중치  $w_{21}$   $\Rightarrow$  특정 계층의 노드 1에서 다음 계층의 노드 2로 전달되는 신호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가중치 (즉, 다음계층의 노드 번호가 먼저 나옴)

가중치  $w_{2N}$   $\Rightarrow$  특정 계층의 노드 N에서 다음 계층의 노드 2로 전달되는 신호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가중치 (즉, 다음계층의 노드 번호가 먼저 나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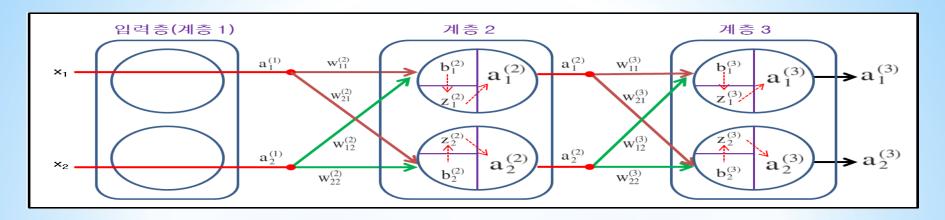


이러한 가중치 값들은, 층과 층사이의 모든 노드에 초기화 되어 있으며, 데이터가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전파(propagation) 될 때, 각 층에 있는 노드의 모든 가중치(w<sub>11</sub>, w<sub>12</sub>, ··· w<sub>MK</sub>, w<sub>LK</sub> 등)는 신호를 약화시키거나(낮은 가중치) 또는 신호를 강화(높은 가중치) 시키며, 최종적으로는 오차가 최소 값이 될 때 최적의 값을 가지게 됨

#### 아키텍처 비교 - logistic regression vs. deep learnin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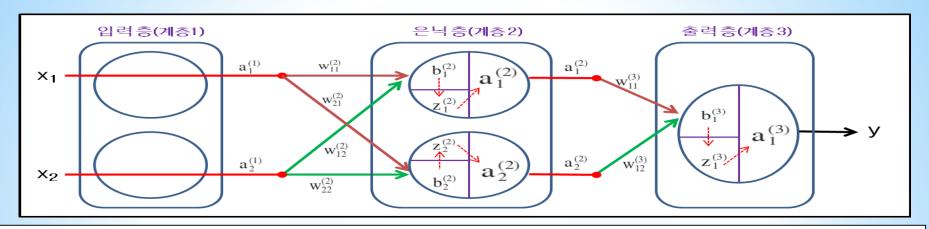
#### 피드포워드 (feed forward) - 표기법(notation)



#### 계층간 가중치 표기법 (weight notation)

- 가중치  $\mathbf{W}_{21}^{(2)}$  ⇒ 계층 2의 노드에 적용되는 가중치로서, 1 계층의 노드 1에서 2계층의 노드 2로 전달되는 신호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가중치 (즉, 가중치에서의 아래숫자는 다음계층의 노드 번호가 먼저 나옴)
- > 노드의 바이어스 표기법 (bias notation)
  - 바이어스  $b_1^{(2)}$   $\Rightarrow$  계층 2에 있는 첫번째 노드 (node 1) 에 적용되는 바이어스
- 노드의 선형회귀 계산 값 표기법 (linear regression notation)
  - 선형회귀 계산 값  $\mathbf{Z}_2^{(2)}$   $\Rightarrow$  계층 2의 두번째 노드 (node 2) 선형회귀 계산 값 (  $\mathbf{Z}_2^{(2)} = \mathbf{X}_1 \mathbf{W}_{21}^{(2)} + \mathbf{X}_2 \mathbf{W}_{22}^{(2)} + \mathbf{b}_2^{(2)}$  )
- 노드의 출력 표기법 (node output notation)
  - 노드의 출력 값  $\mathbf{a}_2^{(2)}$  ⇒ 계층 2의 두번째 노드 (node 2) 출력값으로서, logistic regression 계산 값. 활성화함수(activation function)로서 sigmoid를 사용한다면  $\mathbf{a}_2^{(2)} = \mathbf{sigmoid}(\mathbf{z}_2^{(2)})$

#### 피드포워드 (feed forward) - 동작방식 (I)



#### 피드포워드 (feed forwar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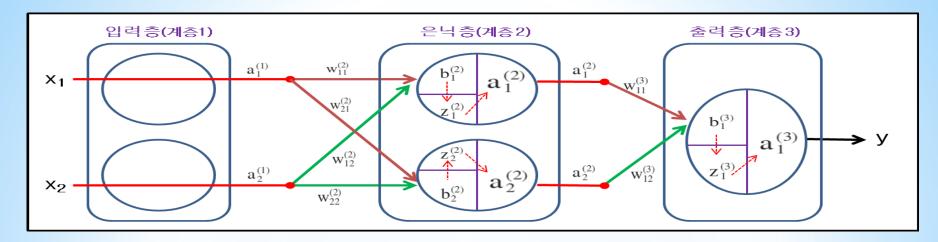
- 입력 층(input layer)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고, 1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은닉 층(hidden layer)을 거쳐 서 마지막에 있는 출력 층(output layer)으로 출력 값을 내보내는 과정
- 딥러닝 에서는 이전 층(previous layer)에서 나온 출력 값 ⇒ 층과 층 사이에 적용되는 가중치 (weight) 영향을 받은 다음 ⇒ 다음 층(next layer)의 입력 값 으로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함

#### ➤ 입력 층(input layer) 출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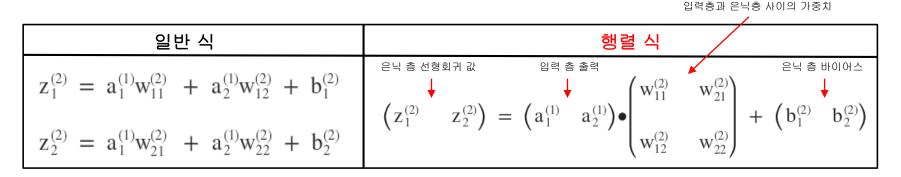
■ 딥러닝 입력 층에서는 활성화 함수인 sigmoid 를 적용하지 않고, 입력 값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.

일반 식	행렬 식
$a_1^{(1)} = x_1   a_2^{(1)} = x_2$	$\left(a_1^{(1)}  a_2^{(1)}\right) = (x_1  x_2)$

#### 피드포워드 (feed forward) - 동작방식 (II)



#### ➤ 은닉 층(hidden layer) 선형회귀 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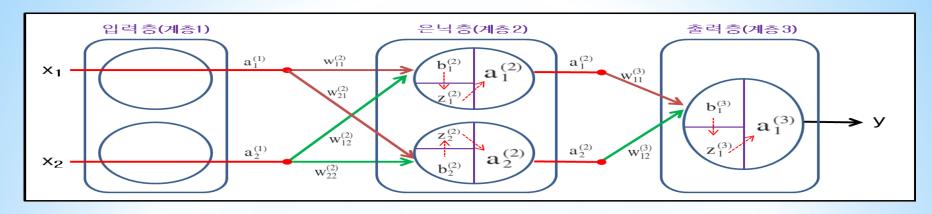


➤ 은닉 층(hidden layer) 출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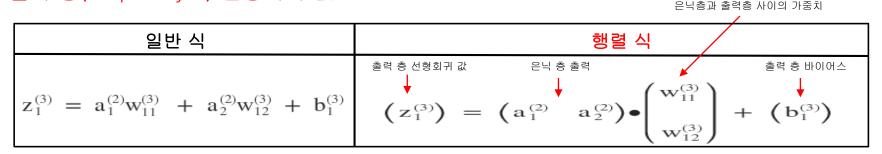
$$a_1^{(2)} = sigmoid(z_1^{(2)})$$
  $a_2^{(2)} = sigmoid(z_2^{(2)})$ 

■ 활성화함수(activation function)는 sigmoid 이므로 출력 값의 범위는 0~1 사이의 값만을 가짐

#### 피드포워드 (feed forward) - 동작방식 (III)



#### ➤ 출력 층(output layer) 선형회귀 값



➤ 출력 층(output layer) 출력

$$y = a_1^{(3)} = sigmoid(z_1^{(3)})$$

- 출력 값 a1 은, 입력 데이터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y 값 이며, 이러한 y 값과 정답 t 와의 차이인 오차(loss)를 통해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학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
- 즉, 딥러닝 에서는 출력 층(output layer)에서의 출력 값(y)과 정답(t)과의 차이를 이용하여,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각 층에 있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최적화 해야 함

## 딥러닝 에서의 [W, b] 계산 프로세스

